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바람난장” 활동사례를 통한 연합예술 활동모델 제안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강 경 모

2021년 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바람난장” 활동사례를 통한 연합예술 활동모델의 제안 연구

지도교수 황 경 수

강 경 모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강경모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강주경 (인)

위 원 고혜영 (인)

위 원 황경수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20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the Combined Art Activity Model through the Activities of "BaramNanchang"

Kyung-mo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u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0.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Kim Ju Kyong

Ko Hye-young

Hwang Kyungsoo

2020. 12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Ⅱ. 이론 및 선행연구 ····· 4

1. 관련 이론 연구 정리 ····· 4

1) 예술활동에서의 연합예술활동 관련 이론 ····· 4

2) 예술가의 주체성과 공유의 문화 ····· 6

3) 창의적 협업의 요소 ····· 7

4) 동조화와 연합예술활동의 맥락 ····· 8

2.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9

3. 분석의 틀 ····· 10

Ⅲ. 사례분석과 연합예술활동 모델 제안 ····· 12

1. ‘바람난장’ 구성과 준비과정 소개 ····· 12

1) ‘바람난장’ 의 구성과 운영 ····· 12

2) ‘바람난장’ 공연 준비와 실행과정 ····· 13

2. ‘바람난장’ 3년 활동 내용 소개와 분석 ····· 15

1) 2017년 ‘바람난장’ 사업 내용 정리 ····· 15

2) 2018년 ‘바람난장’ 사업 내용 정리 ····· 17

3) 2019년 ‘바람난장’ 사업 내용 정리 ····· 18

3. 신문지상과 유튜브에 공개 내용 ····· 19

1) ‘분홍빛 미소에 숨이 막힌 봄날’(2019. 4. 6) ····· 19

2) ‘돈 떨어진 건달같이 봄날은 가네’(2019. 4. 6) ····· 2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2019년 마지막 바람난장, 신나게 놀았다’(2019. 12. 21) …… 27
4) ‘바람난장 스스로에게 편지를 띄우다’(2019. 12. 21) …… 29
5) 유튜브상에 소개된 내용 정리 …… 33
6) ‘바람난장’ 결과물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 …… 33
4. 연합예술활동 활성화와 정책제언을 위한 인터뷰 내용 정리 …… 34
1) 인터뷰의 개요와 내용 …… 34
2) 인터뷰 내용 함의 …… 39
5. ‘바람난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예술활동 모델 제안 …… 41

Ⅳ. 정책제언 …… 44
1. ‘바람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제언 …… 44
2.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언 …… 45

Ⅴ. 결론 …… 47

참고문헌 …… 49
Abstract …… 50
부록 …… 5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목 차

<표 1> 콜라보레이션 관련 개념들 ····· 4
<표 2> 2017년 '바람난장' 사업 추진결과(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정리) ····· 15
<표 3> 2018년 '바람난장' 사업 추진결과(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정리) ····· 17
<표 4> 2019년 '바람난장' 사업 추진결과(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정리) ····· 18
<표 5> 인터뷰 대상자 현황 ····· 3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흐름 및 분석요소 ····· 11
<그림 2> 한라수목원 원장 양영환 박사의 해설 모습 ····· 20
<그림 3> 첫 공연 이후 단체사진을 찍은 '바람난장'의 모습 ····· 21
<그림 4> 플루티스트 김수연의 연주 모습 ····· 21
<그림 5> 문순자, '4.3 그 다음날' 전문 ····· 22
<그림 6> 성악 공연을 하고 있는 황경수, 김영곤의 모습 ····· 23
<그림 7> 행사 참여자 소개 내용 ····· 23
<그림 8> 첫 장소를 배경으로 한 그림의 모습 ····· 24
<그림 9> 무용공연과 시낭송 모습 ····· 25
<그림 10> 안도현, '벚나무는 건달 같이' 전문 ····· 25
<그림 11>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장유석의 모습 ····· 26
<그림 12> 행사 참여자 소개 내용 ····· 26
<그림 13> 공연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유창훈 作) ····· 27
<그림 14> 마지막 연주 후 단체사진 촬영 모습 ····· 29
<그림 15> 김순이 '미친 사랑의 노래 7' 전문(시낭송 김정희) ····· 30
<그림 16> 성악 공연을 하고 있는 오능희의 모습 ····· 31
<그림 17>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김수연, 오승명, 강명은의 모습 ····· 32
<그림 18> 행사 참여자 소개 내용 ····· 32
<그림 19> 2019년 7월 27일 대정 백조일손지묘에서의 바람난장 ····· 33
<그림 20> 바람난장 및 연합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 ····· 41
<그림 21> '바람난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예술활동 모델 ····· 4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문초록

최근 연합예술활동이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술분야에서도 융·복합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관광과 예술의 콜라보, 체육과 예술, 생활과 예술, 과학과 예술의 콜라보 등 많은 분야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연합예술활동' 이라는 장르를 소개하고, 예술단체간에 상호부조적인 접근, 공진, 협력을 통한 창의성을 통한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바람난장' 의 연합예술활동의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연합예술활동 모델의 요소를 제안하고, '바람난장' 의 연합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바람난장' 의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책자와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의 분석, '바람난장' 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바람난장' 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2017년에는 52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22회, 2019년에는 21회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어 7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 및 예술인, 예술단체 참여의 확대, 다양한 장르가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연합예술활동을 위한 연습 장소의 필요성, 사회공헌 및 공공과의 협의, 홍보, 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바람난장' 활성화와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에 대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제언하였다. 먼저 '바람난장'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의 강화,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 장르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출연진 섭외, 융·복합을 통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창의적인 콜라보레이션의 지향, 참여자 풀의 확장을 제언하였다.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장소 섭외, 홍보에 대한 공공의 협조, 보조금 지원 시 연합예술활동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제공, 연합예술활동 콘테스트,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연습장 마련과 제공을 제언하였다.

예술의 창의성은 개인적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합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동의 영역이 개척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예술활동의 불확실성에 의해 영상과의 콜라보레이션인 예술활동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예술적 아트 콜라보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연합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체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지역의 대표적 연합예술활동으로 '바람난장' 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면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합예술활동 모형을 일반화하고자 하는 판단 하에 최근의 사회흐름과 예술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서로를 인지하고 서로 접근이 가능하며, 경계를 낮게 하여 유연한 상호작용이 있으나 연합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하게 되었다.

최근의 예술분야에서의 맥락적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합예술활동이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술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시대가 도래하여 예술분야에서도 융·복합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합예술활동' 이라는 장르를 소개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다윈(Darwin)의 적자생존, 경쟁과 진화의 틀에서 크로포트킨(Kropotkin)의 '경쟁과 협력', '상호부조'의 진화가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1]. 협력을 하면서 경쟁을 해나가야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예술분야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굳이 지원과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예술단체간에 상호부조적인 접근이 연합예술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맥락이다. 따라서 연합예술활동은 국가의 큰 부담이 없이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협력을 통한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독립적 장르로서의

1) 이승우 (2010). 「국가론」, 서울: 두남, pp. 3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창의성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연합예술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합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협력의 경험으로 신뢰가 확보되면 예술단체들 간의 함께 진화하는 공진(共進, co-evolution)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 제주지역의 모든 장르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연합예술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예술활동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포괄적 예측과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배경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난장' 의 연합예술활동의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연합예술활동 모델의 요소를 제안하고, '바람난장' 의 연합예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에 있다. 이 제안은 '바람난장' 을 위한 제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연합예술활동이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람난장' 의 구성과 운영시스템, 공연활동의 준비와 실행과정, 공연현황 분석을 통한 함의 도출, 신문지상에 표현하는 결과물에 대한 분석, 유튜브에 소개된 사례, 인터뷰를 통한 의견취합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연구의 내용이면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각 부문들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주로 활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뷰 방법이다. 문헌연구로서는 예술활동에서의 연합예술활동 관련 이론, 예술가의 주체성과 공유의 문화, 창의적 협업의 요소, 동조화와 연합예술활동의 맥락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례연구로 '바람난장' 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책자와 신문지상의 보도내용, 유투브의 영상을 인용하여 분석하는 절차를 밟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터뷰는 ‘바람난장’ 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바람난장’ 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과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을 묻는 형태로 수행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직접 운영했던 분들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바람난장’ 이 활동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의 공연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각전시분야(문학, 미술 등)과 무대공연분야(음악, 연극 등)의 장르를, 공연장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지역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이론 및 선행연구

1. 관련 이론 연구 정리

1) 예술활동에서의 연합예술활동 관련 이론

(1) 콜라보레이션 관련 개념과 위치

융·복합이라는 다소 포괄적 어원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융합이란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섞거나 조화시켜 하나로 합함' 을 말하며, 복합이란 '둘 이상이 거듭 합쳐지거나 그것을 합쳐 하나를 이룸' 을 말한다. 또한 탈장르는 '문학 및 예술에서, 그 갈래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는 일' 을 뜻한다[2].

이렇듯 어원적 표현으로 본다면 둘 이상의 것을 합하여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새로운 것의 탄생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현재 예술에서 이런 어원적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뭉쳐 기존의 것들의 변형을 통해 색다른 예술을 탄생시키기 위함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 예술 계통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콜라보레이션 관련 개념들

용어	퓨전 (Fusion)	하이브리드 (Hybrid)	크로스오버 (Crossover)	컨버젼스 (Convergence)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의미	융합, 융해, 용해, 통합	잡종, 혼성, 혼종	교차, 혼합, 횡단	통합, 수렴, 융합	협업, 협동, 합작, 협조

2) 한승연·차수정 (2015). 국립무용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사례분석 연구, 「한국무용연구」, 33(1): p.13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특징	이질적인 것이 결합되어 그 전과는 다른 것이 발생	결합 영역이 넓고 양상이 다양함	'장르의 교차', '관계맺기'에 주력, 교차적, 절충주의적 경향	새로운 기술이나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을 합치는 경향	브랜드, 기업, 독자적인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업
개념	추상적 개념	추상적, 구체적 개념 모두 지님	구체적 개념	구체적 개념	구체적 개념
쓰임	사회전반에서 사용, 정신·문화 융합에 주로 사용	사회전반에서 사용	타 문화장르와 합일을 통해 새로운 장르나 형식의 창출에 주로 사용	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제품 통합에서 주로 사용	콜라보레이터와 콜라보레이터 사이에서 사용
주된 사용 분야	음악, 음식	생물, 기술, 조형, 예술 관련 영역	음악, 자동차	디지털 기술 관련 영역	예술과 제품, 패션 등의 디자인 영역

※ 출처 : 김은정 (2012). 현대 장신구의 융합 현상 및 융합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p. 7-8 ; 한승연·차수정 (2015). 국립무용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사례분석 연구, 「한국무용연구」, 33(1): p. 133에서 재인용.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 산업분야에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융·복합의 용어들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한 용어들로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탄생시키는 것을 뜻하며, 예술에서는 탈 장르화라고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연결하면서, 한글표현으로 이해를 정리하고자 하여 '연합예술활동' 이라 명하고자 한다.

(2) 콜라보레이션의 목적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은 협업이란 뜻으로 '모두 일하는', '협력하는 것' 이라는 의미로 공동출연, 경연, 합작,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3],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일하는 것의 협업을 뜻한다. 이렇듯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협업하여 새로운 하나를 창출해 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1+ 1=2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위키백과 검색 '콜라보레이션' https://ko.wikipedia.org/wiki/%ED%98%91%EC%97%8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콜라보레이션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사용되어 지는 이유는 좀 더 새로운 것,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창의적인 것을 중시하고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처음 콜라보레이션의 등장은 예술 후원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는 당대 예술 천재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함으로써 그들의 재능을 꽃 피우게 한 전통이 오늘날 콜라보레이션의 기원이 되었다(범상규, 2014). 이러한 예술적 후원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차별화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콜라보레이션의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이렇듯 콜라보레이션은 창의성을 중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함이며,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2) 예술가의 주체성과 공유의 문화

협업에는 예술가의 개별적 개성과 주체성이 공유라는 문화를 거치면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터넷 생산적인 협업체제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간에 그 결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어서 협업이 성공한다고 전제하고 있다[4]. 높은 수준의 협업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창의적 시도가 활발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수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으로 창의문화와 신뢰문화를 갖추는 게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협업을 위한 중요한 전제는 공유의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업에 도전하는 문화, 협업과정에서 실패를 인내하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주간경향, 류한석, (2014.03.04.), “[IT칼럼] 한국에선 창의적 협업이 안 되는 까닭”,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402251557461 (2020.09.21. 검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창의적 협업의 요소

성공하는 기업들은 창의적 협업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해마다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장 창의적인 회사 목록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곤 한다. 이들 회사가 창의적이라는 말은 가장 협업을 잘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럴까? 이들이 개발하는 상품이나 아이디어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업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심재우(2015)는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선두를 달리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전, 목표, 핵심가치를 모든 직원이 공유하며 실행한다.

② 창의적 사고를 갖고 함께 일하며,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어 고객 지향적이다.

③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스킬과 능력이 있다.

④ 비즈니스와 연관된 파트너와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전진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지니고 있다.

⑥ 고객과의 긴밀한 접점을 제공하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⑦ 비즈니스 문제와 장애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푸는 문제해결 능력을 활용한다.

⑧ 자발성과 오너쉽을 가지도록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다.

⑨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회사의 업무를 즐긴다.

이를 참고하여 예술분야의 연합예술활동의 요소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① 비전, 목표, 핵심가치를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며 계획부터 공유하고 실행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 창의적 사고를 갖고 함께 일하며, 항상 결과와 고객을 중심에 두어 고객 지향적인 노력을 한다.

③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스킬과 능력을 지닌다.

④ 비즈니스와 연관된 파트너와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전진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을 지닌다.

⑥ 고객과의 긴밀한 접점을 제공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⑦ 다양한 문제와 장애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푸는 문제해결 능력을 활용한다.

⑧ 구성원들 모두가 자발성과 오너십을 가지도록 동기부여의 요소를 마련한다.

⑨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협업체제의 업무를 즐긴다.

4) 동조화(coupling)와 연합예술활동의 맥락

그라노베터(Granovetter)가 개념화하는 '동조화(coupling)' 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두 변수 내지 현상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 볼 때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면(ceteris paribus)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자원소비 증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역인 현상을 '탈동조화(decoupling)' 라고 한다.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한 경우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예상되는 두 변수 또는 현상이 중요한 조건들이 변화함으로써 더 이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팀 잭슨(Tim Jackson)은 환경에서는 탈동조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재 생태에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5]. 본 연구에 연결하여보면

5) 이건민(녹색전환연구소 편집위원), "용어소개, 동조화(coupling), 탈동조화(Decoupling),"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 http://igt.or.kr/index.php?document_srl=56595&mid=newsbriefi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합예술활동모델에서 동조화현상을 유도해야 하며,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도출

예술분야에서 연합예술활동 관련 연구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승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승연(2014)은 연합예술활동의 유형을 콜라보레이션의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구분하고 있다. 아티스트와 브랜드, 스타와 브랜드, 브랜드와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그 사례로 패션디자이너 정구호와 국립발레단의 콜라보레이션, 무한도전과 댄스스포츠의 콜라보레이션,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의 콜라보레이션, 무용공연 무무타, 백지영의 뮤직비디어 “사랑이 올까요” 에 대중음악과 현대무용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공연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승연 외(2015)에서는 관객확보를 어려워하는 무용이라는 장르는 다른 공연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룸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연구이다. 특히 한국 춤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콜라보레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승연(2016)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콜라보레이션 무용공연에 대한 관람욕구, 공연만족, 행동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콜라보레이션 무용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였다.

정경연 외(2013)에서는 예술가는 협업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패션 브랜드와 고객층을 공유하는 영역확장의 장점을 가지며 작가 자신의 아이덴터티를 구축하고 프로모션 효과도 얻게 된다는 논의를 펴고 있다.

협업과 공유를 통한 예술분야의 영역확장, 특히 무용공연부문의 타 장르와의 연합예술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연합예술활동의 파트너로써는 공연예술분야인 음악공연 현장에서 같이 이루어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인 우리나라 주요관광지 소개영상이 눈에 띄게 온라인 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관광과 예술, 더 나아가 예술에서의 국악과 대중음악, 그리고 무용이 합쳐진 연합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획기적인 음악(국악)과 안무에 수려한 의상 및 영상과 함께 어우러져 국내외적으로 3억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극찬을 받고 있다. 이렇듯 여러 장르에서의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시도되고 있다.

3.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해 이론연구와 사례분석을 할 것이다. 사례분석 시에는 직접 '바람난장' 을 운영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연합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지방정부에 바라는 정책제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람난장' 구성원들에게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람난장' 구성과 운영시스템 분석

② '바람난장' 준비와 실행과정

③ '바람난장' 현황 3년의 내용과 분석, 함의도출

④ 신문지상에 표현한 사례분석

⑤ 유튜브에 소개된 내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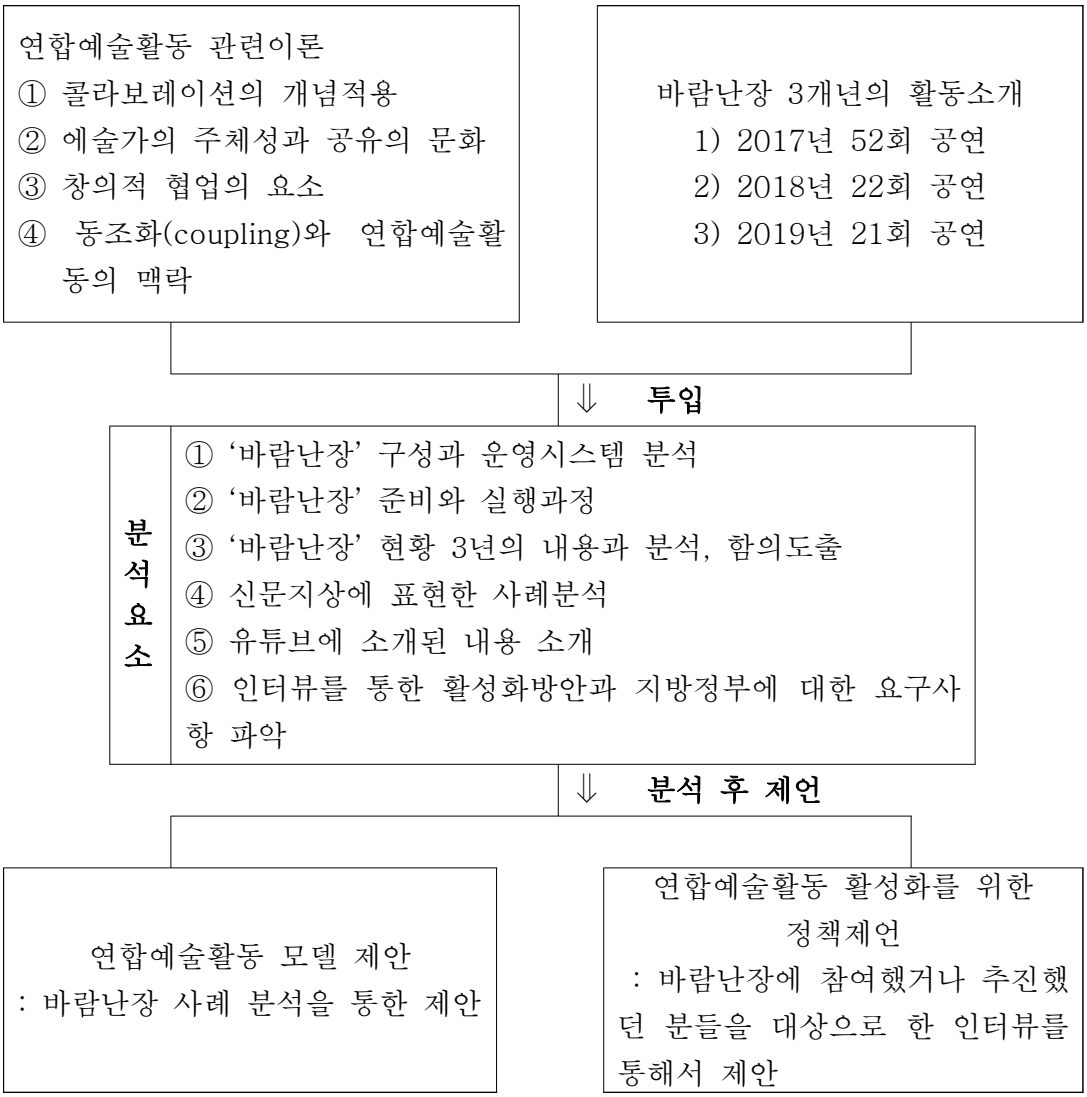
⑥ 인터뷰를 통한 활성화방안과 지방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연합예술활동모델의 틀을 '바람난장' 을 중심으로 제안하게 된다.

정책제언으로써는 '바람난장' 의 연합예술활동 모델로써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지방정부를 위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 연구의 흐름 및 분석요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Ⅲ. 사례분석과 연합예술활동 모델 제안

1. ‘바람난장’ 구성과 준비과정 소개

바람난장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8년 2019년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2017년에는 52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18년에는 22회, 2019년에는 21회의 공연을 했다.

바람난장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합예술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자발적 의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제주도에서 사연을 품고 있지만 숨어있는 곳을 예술로 소개하는 의미도 있다.

넷째, 자연을 찾아 자연과 더불어 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시도가 있다.

다섯째, 예술가들이 기획설계(예산)-집행(진행, 홍보)-경과보고(결과, 피드백) 등 모든 것을 담당하는 주체적 활동으로써 의미가 있다.

여섯째, 장르별 단순 합으로써만이 아니라 예술장르 간에 서로 콜라보 하여 공연을 만드는 노력을 지향한다.

1) ‘바람난장’ 의 구성과 운영

바람난장은 비공식적이지만 장르별로 그룹화되어 있으며 총 회원은 25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비를 받으며 회비를 낸 회원에 한하여 회원이라 칭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보다 유연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목적보다는 바람난장 행사 원래 목적의 성취가 주된 지향이기 때문이다.

대표 한 명이 있으며, 사무국이나 스텝, 총무 역할 등은 그 대표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성되어 정형적인 틀을 두지는 않고 있다.

2) '바람난장' 공연 준비와 실행과정

바람난장의 공연준비와 실행과정은 바람난장을 1년여 준비해온 실무자인 황00의 도움을 얻어 정리하였다.

(1) 1년간의 기획

바람난장 1년의 기획은 초창기 2017년에는 자체적 예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지원과 연결한 일정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제주메세나협회의 메세나매칭그란트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1년에 21-22회차의 운영계획을 메세나 예산과 연결하여 기획하였다.

일반예산은 단원들의 회비 혹은 별도의 기부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 또한 제주메세나협회와 연결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정산은 엄격해야 함으로 공식적 행사에 지원하는 형태를 기획해야 한다. 별도 기관의 지원은 마지막 회차 공연시 전시, 1년간의 기록을 정리하는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1년 일정을 구성할 때는 임원진 격인 여러 명이 모여 기획하였다. 여러 회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한다. 장르별로 참석한다. 바람난장은 시와 문학, 시낭송,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영상, 사진 등으로 구성된다. 장르별로 모두 모이지는 않지만 장르별 대표 격인 몇 명이 모여서 공론과정을 거친다.

(2) 각 회차 마다의 기획

각 회차를 위해 사전 장소 탐방을 위해 대표는 현장 방문, 해당 마을대표, 시설대표, 공동기관 등과의 섭외를 한다.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타진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SNS에 올린다.

사진영상파트의 구성원 중 한 명이 SNS를 통해서 일정기간 출연진들을 정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다. 그 출연진들은 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표가 개별적으로 섭외하기도 한다.

(3) 공연 현장에서 진행절차

공연 당일 현장에는 음향담당자와 대표가 가장 먼저 도착해 공연 위치 잡기에 들어간다. 사진과 영상파트 구성원이 보정을 하기도 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직접 장비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현장에 모두 도착한 후 결정하였다.

우천 시는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악기나 무용공연 등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었다.

(4) 결과의 취합과정

공연이 끝나면 사진과 영상, 글, 그림 등이 제주일보(구, 제주신보)의 문화부로 전달된다. 제주일보는 바람난장의 공동주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1회의 공연을 하면 그 내용을 두 번에 걸쳐 신문에 보도를 해주는 협력을 했다. 공연한 다음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금요일, 즉 2회에 걸쳐 보도를 하게 된다.

공연자들은 공연이 끝나면 역할이 끝나지만, 사진과 영상, 그림, 그리고 글 부분의 작가들은 취합하고 정리를 하여 신문사에 보내는 별도의 봉사가 투입된다.

(5) 마지막 회차의 공연

바람난장의 마지막 공연은 12월 말 경에 개최한다. 1년의 예산을 정산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해서 12월이 지나기 전에 개최한다. 미술작품을 봉사했던 분들의 내용을 전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 공연에서는 그 동안 도와주신 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게 된다. 마지막 공연으로 잔치형태를 띠기도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바람난장’ 3년 활동 내용 소개와 분석

1) 2017년 ‘바람난장’ 사업 내용 정리

‘바람난장’이 시작되었던 2016년 말,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총 52회 공연을 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시작되었으며, 주 1회 마다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 장소는 백록담부터 비양도 섬 등 현장공연과 갤러리, 시인의 집 등 실내 공연을 병행하면서 실시하였다. 제주도 내의 의미있는 곳을 찾아 제주의 역사와 예술장르간의 연결을 도모하는 행사를 주로 개최하였다.

첫 해에는 오승철 대표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였다.

<표 2> 2017년 ‘바람난장’ 사업 추진결과(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정리)

회차	날짜	장소
1	2016.12.31	팔운석
2	2017.1.7	닭머르
3	1.14	위미리 동백꽃 마을
4	1.21	삼매봉 남성정
5	1.28	진안할망당
6	2.4	꽃머체·헹기머체
7	2.11	구엄 돌염전
9	2.18	머체골
10	2.25	까사돌 카페
11	3.4	장산철 산책로
12	3.11	백록담
13	3.18	하물
14	3.25	무등이왓
15	4.1	비양도
16	4.8	명월대
17	4.15	쇠소깍
18	4.22	조천 연북정
19	4.29	산지천
20	5.6	구억리 노랑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1	5.13	김순이 시인의 집
22	5.20	농업회사법인(유)삼다인 농장
23	6.3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합주 연습공간
24	6.10	아끈다랑쉬 오름
25	6.24	초원의 집
26	7.1	옛 대정면 사무소 청사
27	7.8	모슬포 삼다도 노래비
28	7.15	유수암리
29	7.22	금능 원담
30	7.29	오조리 식산봉
31	8.5	사계리 발자국화석
32	8.12	두모악 김영갑 갤러리
33	8.19	윗세오름
34	8.26	보목동 '볼레낭개'
35	9.2	신산공원 문학동아리 축제
36	9.9	솔동산 고영우 갤러리
37	9.16	우도 고래 콧구멍 동굴
38	9.23	원당봉
39	9.30	북촌 돌하르방공원
40	10.7	우도 분화구
41	10.14	서귀포 칠십리 야외 공연장
42	10.21	제주시 해안도로 로렐라이
43	10.28	안덕면 서광리의 '정낭난장'
44	11.4	솔오름(미악산)
45	11.11	따라비 오름
46	11.18	연동 박흥일 서예 창작실
47	11.25	알뜨르 비행장
48	12.2	제주신화전
49	12.9	제주교육박물관
50	12.16	위령공원
51	12.23	석화갤러리
52	12.30	민속자연사 박물관

※ 출처 : 김해곤 발행 (2019). 「예술이 흐르는 길, 2018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pp. 36-39 에서 발췌.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에 표로 첨부하였다. 부록 표에는 시행 회차, 일시, 장소, 주제, 출연진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2018년 ‘바람난장’ 사업 내용 정리

2018년 행사는 총 2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격주에 한 번 개최하는 형태를 취했다.

2018년 행사는 제주메세나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 출연료를 지불해주기 시작하였다. 다만 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회원들의 회비와 자비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면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해곤 화백이 대표로서 책임을 맡아서 장비구입과 정산을 담당하고 추진하였다. 고해자 시인이 정산부분을 도와서 행사를 진행했다. 스텝진 확보가 어려운 구조여서 임원진들이 노고가 컸지만 수고비는 드릴 수 없었다. 장르별 예술가들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했고, 공연 당일 공연현장에서도 장비를 옮기는 일을 서로 담당하였다. 정산 등의 일도 임원진들이 직접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3> 2018년 ‘바람난장’ 사업 추진결과(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정리)

회차	날짜	장소
1	2018.3.3	서귀포 칠십리 詩 공원
2	3.17	옛 구억국민학교
3	3.31	김석희 번역가 자택
4	4.14	변시지 추모공원
5	4.28	서귀포 면형의 집
6	5.12	관음사 충성공원 충혼비
7	5.26	석주명 나비공원
9	6.9	모슬포 강병대교회
10	6.23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11	7.7	애월읍 수산리 곰솔
12	7.21	금산공원
13	8.4	방선문
14	8.18	현대미술관
15	9.1	송악산 진지동굴
16	9.15	하논 분화구
17	9.29	삼매봉 남성정
18	10.13	고마로
19	11.10	사려니 숲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	11.24	사라봉 산지등대
21	12.8	도두봉
22	12.22	탑동 해변공연장 소극장

※ 출처 : 김해곤 발행 (2019). 「예술이 흐르는 길, 2018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pp.2-3 에서 발췌.

3) 2019년 '바람난장' 사업 내용 정리

2019년에는 총 21회의 난장 공연을 실시하였다. 격주로 1년 여간 시행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바람난장' 이라는 베넷깃발을 만들어서 공연마다 활용하였다. 야외무대를 장식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음향시설과 건반 등의 장비는 제주메세나협회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위탁계약을 하고 추진하여 항시 기본음향이 준비되도록 하였다. 회원들인 예술가들이 직접 이동하는 수고로움이 다소 해소되었다.

황경수 교수가 대표를 맡아서 운영했다. 스텝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태풍이 6회 이상 오는 상황이 되어서 현장 공연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 4> 2019년 '바람난장' 사업 추진결과(날짜와 장소 중심으로 정리)

회차	날짜	장소
1	4.6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5.16도로)
2	4.20	문필봉, 외솔받이,밭가운데 조각품
3	5.4	구억초등학교
4	5.18	건입동 동자복 일대
5	6.1	우도일대
6	6.15	대정현 역사전시관 일대
7	6.29	김녕일대
8	7.13	어리목 광장
9	7.27	대정 백조일손지묘
10	8.4	고산포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1	8.10	협재리 돌빛나예술학교 동굴
12	8.24	정방폭포
13	9.7	성산포
14	9.21	남원읍 의귀리사무소
15	10.5	따라비 오름 일대
16	10.19	산지천
17	11.2	용연 구름다리 일대
18	11.16	서귀포 도순동 일대, 오 넘버원 농장 일대
19	11.30	산천단
20	12.12	가파초등 학예회 난장
21	12.21	강부언 갤러리(아트인 명도암)

※ 출처 : 황경수 발행 (2020). 「예술이 흐르는 길, 2019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pp.10-11 에서 발췌

3. 신문지상과 유튜브에 공개 내용

공연한 내용은 제주일보[6]에 실렸다. 내용을 항목을 달아 표시하면 유형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람난장' 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신문지상에는 '바람난장' 에서는 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그림의 장르가 나타난다. 화백들이 '바람난장' 현장에서의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 올려주는 것이다.

다음에 제시한 네 가지 보도에 대한 내용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람난장' 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 분석은 결과물을 통해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결과물을 신문지상에 보도할 때의 긍정적 의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1) '분홍빛 미소에 숨이 막힌 봄날' (2019. 4. 6. 바람난장 첫 무대)

(1) 장소 소개

6) 2017, 2018, 2019년에는 제주신보라는 이름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날이 좋았다 사월 날씨는 워낙 변덕스럽지만 올해 첫 바람난장을 펼치는 첫 주말은 따사로운 봄 그 자체였다. 바야흐로 절정에 다다른 벚꽃은 가는 길마다 가슴이 막힐 지경이다. 누가 토해낸 그리움인지 눈이 시리고 심장은 파닥거려 달뜬 기분이다. 그 그리움의 근원지 왕벚나무 자생지를 찾아가는 길이다. 신례리 왕 벚나무 자생지는 5.16도로를 달리다 수악교를 지나 150m쯤 가면 만날 수 있다. 숲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요하지만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무의 심장소리가 들린다. 왕벚나무는 그렇게 분홍빛 웃음을 머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 2> 한라수목원 원장 양영환 박사의 해설 모습

(2) 장소와 행사에 대한 의미 소개

“바람난장 사월의 첫 문은 한라수목원 원장이신 양영환 박사의 왕벚나무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대부분 일본이 왕벚나무 자생지로 알고 있지만 잘못된 정보이다. 제주의 하논성당 주임이었던 프랑스 출신 에밀 요셉 타케 신부가 1908년 4월 14일 한라산 관음사 해발 600m부근에서 자생하는 왕벚나무 표본을 처음으로 채집했으며, 그 후 1911년 일본 선교사에게 왕벚나무가 보내져 그 답례로 일본의 미장온주밀감나무 14그루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와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두 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열흘 붉은 꽃 없다지만 왕벚꽃은 해마다 가슴으로 피어 저물지 않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것이다.”

<그림 3> 첫 공연 이후 단체사진을 찍은 ‘바람난장’의 모습

(3) 플룻 공연 소개

“바람소리였는지 나뭇잎의 속삭임인지 맑고 은은한 선율이 흐른다. 김수연님의 플루트 연주 포레 시칠리엔느의 G. Faure Sicillienne op. 78번 곡이 숲을 채우고 있었다. 자연합일 혹은 물아일체의 순간이다. 새소리와 바람소리와 나무가 함께 연주하고 화답하는 숲의 아리아. 드라마 ‘황진이’의 삽입곡 꽃날과 클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이 봄바람을 불어넣는다. 사람들 입가엔 따사로운 봄이 가득 묻어 있다. 내가 꿈을 꾸는지 왕벚꽃이 꿈을 꾸는지. 호접몽(胡蝶夢)이 아니라 화접몽(花蝶夢)이다.”

<그림 4> 플루티스트 김수연의 연주 모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시낭송 소개

“벚꽃나무의 황홀함에 취하는 것도 잠시 잔인한 달 사월의 기억이 우리를 붙든다. 아직 잊혀지지 않은, 영원히 잊혀져서는 안 될 4.3의 아픔을 더듬는다. 문순자 시인의 ‘4.3 그 다음날’의 기억을 시낭송가 김정희님이 애절하게 읊조린다.”

<그림 5> 문순자, ‘4.3 그 다음날’ 전문

밤새 난바다가 지켜낸 외등하나 왕벚나무 그늘 아래 비린내로 나앉아 낱낱이 옥돔 비늘을 훑어내고 있었다.

“왕벚나무 꽃잎에서 옥돔의 비린내를 맡는 시인. 아름다움조차 꽃멀미를 앓을 수밖에 없는 4.3의 기억들. 처절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사월 그리고 봄. 찬란한 울음이라는 아이러니로 이 봄을 건너야 한다. 피고 지는 일 그 또한 찰나이겠지만.”

(5) 성악 소개

“성악가 황경수, 김영곤님이 부른 남촌과 유년시절의 기행으로 봄의 하모니를 완성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때 그 시절 추억들이 꽃잎처럼 살포시 이마에 내려앉는다. 심연까지 파고드는 저릿한 바리톤과 테너의 감성이 봄의 페부를 찌른다. 심장 가까이 다다른 연민의 숲에서 ‘어제는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고.

바람난장이 끝날 무렵 왕벚나무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다. 언제부터 앉아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를 지켜봤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기억이 잠시 앉았다 간 흔적인지도 모른다. 꽃그늘 아래가 환하디 환하다.”

<그림 6> 성악 공연을 하고 있는 황경수, 김영곤의 모습

(6) 행사 참여자 소개

<그림 7> 행사 참여자 소개 내용

사회=정민자	시낭송=김정희와 시놀이
미술=유창훈	사진=허영숙
무용=박소연	영상=김성수
플루트=김수연	음악감독=이상철
성악=황경수·김영곤	음악반주=김정숙
색소폰=장유석	글=김효선

※ 자료: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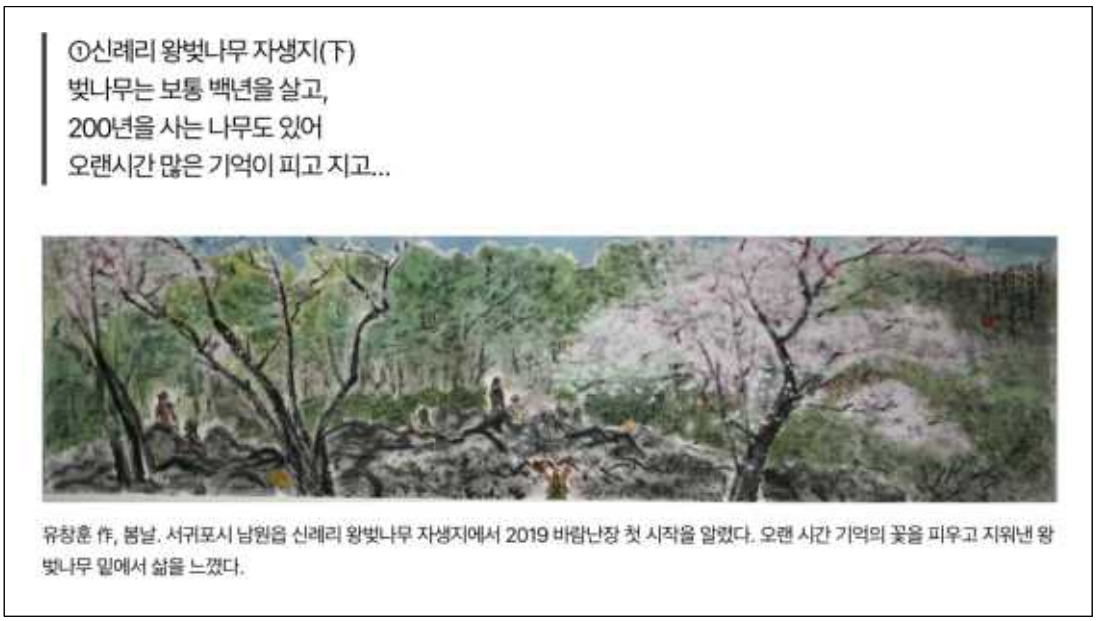
2) ‘돈 떨어진 건달같이 봄날은 가네’(2019. 4. 6. 바람난장 첫 무대)

(1) 왕벚나무 자생지 소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날 신례리 왕벚나무는 무슨 꿈을 꾼 껄까. 그 아래 앉아 있던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꾼 걸까. 벚나무는 보통 백년을 살고 이백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한다. 그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기억들이 피고 졌을까. 삶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껴안고 허공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제주도 왕벚나무는 모계인 올벚나무와 부계인 벚나무 또는 산벚나무의 자연교접에 의해 탄생했으며, 일본은 인공교접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벚꽃나무 자생지가 제주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셈이다. 제주도 왕벚꽃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8> 첫 장소를 배경으로 한 그림의 모습



(2) 무용 소개

“노오란 봄의 빛깔이 하늘하늘 걸어온다. 무용가 박소연님이다. 나비 한 마리가 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날기 시작한다. 잠에서 막 깬 꽃봉오리가 하품을 하며 눈을 뜬다. 꽃봉오리는 햇살이 점점 기지개를 켜며 꽃잎을 활짝 펼친다. 꽃 속을 들여다 본 황홀함도 잠시 고요하게 머무는 봄햇살에 꿈인지 생시인지 아득하다.”

(3) 시낭송 소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낭송가 김정희, 이정아, 이혜정님이 안도현 시인의 '벚나무는 건달 같이'를 낭송하였다. 술에 취한 건 시인일까 벚나무일까. 벚나무를 '돈 떨어진 건달'에 비유하는 상상력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내공이다. 꽃 핀 자리도 꽃 진 자리도 상처라는 삶의 진리가 순간 가슴을 훑고 지나간다. 뒤이어 낭송한 이기철 시인의 '벚꽃그늘에 앉아 보렴'으로 우리는 눈빛이 순해지고 마음까지 넉넉한 그늘이 되었다."

<그림 9> 무용공연과 시낭송 모습

<그림 10> 안도현, '벚나무는 건달 같이' 전문

군산 가는 길에 벚꽃이 피었네 벚나무는 술에 취해 건달같이 걸어가네 꽃 핀자리는 비명이지만 꽃 진 자리는 화농인 것인데 어느 여자 가슴에 또 못을 박으려고..... 돈 떨어진 건달같이 봄날은 가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악기 연주 소개

“그늘이 사라지기 전 심금을 울리는 굵직한 관악기의 음성이 자리를 차지했다. 장유석님이 조관우의 ‘꽃밭에서’를 색소폰으로 불고 있다. 스며드는 건 또 한 순간이다. 봄날의 화양연화가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 풀리지 않았던 마음을 어디 먼 데 두고 온 느낌. 오롯이 음악만이 온 몸으로 스며들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나인지 꽃잎인지 숲인지 모를 시간. 그렇게 봄날은 아득하게 피어서 간다.”

<그림 11>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장유석의 모습

(5) 행사 참여자 소개

<그림 12> 행사 참여자 소개 내용

사회=정민자 미술=유창훈 무용=박소연 플루트=김수연	성악=황경수 김영곤 색소폰=장유석 시낭송=김정희와 시놀이 사진=허영숙	영상=김성수 음악감독=이상철 음악반주=김정숙 글=김효선

※ 출처: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0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2019년 마지막 바람난장, 신나게 놀았다’ (2019. 12. 21. 바람난장 마무리)

(1) 행사 시작 소개

“바람난장 가족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 매번 시간 내기 쉽지 않았을텐데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모두가 즐긴 무대였기에 올해도 행복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실험예술을 펼쳐왔던 바람난장이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올 경자년의 행복을 비는 바람난장 공연 ‘돌아봄(春)’ 무대를 열었다.”

<그림 13> 공연장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유창훈 作)

(2) 장소 소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올해 마지막 공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강부언 작가의 갤러리 카페인 ‘아트 인 명도암’에서 진행됐다.”

(3) 행사 전체에 대한 소개

“이날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관람객 50여 명이 관람석을 가득 채웠다. 2019년의 마지막 무대인만큼 다채로운 공연들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작은 무대였지만 공연의 내용은 풍성했다.

연극인 정민자씨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오승명 씨의 마림바, 김수연 씨의 플루트, 강명은 씨의 카혼 등 세 연주자가 선사한 아름다운 무대로 시작됐다.

다음으로 국악단 가향의 전병규씨와 반주를 맡은 현희순씨가 우리나라 가곡(歌曲) 태평가(太平歌)의 반주곡을 변주한 ‘청성곡’과 자작곡 ‘가을’을 연주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어 김정희와 시놀이 팀이 명도암 마을과 어울리는 시를 낭송했고 무용가 장은씨는 우아한 몸짓으로 입춤을 선보였다. 또 오능희씨가 문순자 시인의 시에 고승익 작곡가가 음을 붙여 만든 곡 우도땅콩, 파랑주의보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경택씨의 팬플룻 연주와 오현석씨의 리코더연주, 수오노펠리체의 남성 중창 공연을 끝으로 다양하고 알찬 무대가 마무리됐다.”

(4) 한 해 마무리 인사 소개

“황경수 2019 바람난장 대표는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분들이 모인 예술공동체라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표시가 안 나는데 회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황대표는 또 ‘각 장르마다 성격과 특성, 정체성, 미학 등이 다 다르지만 예술공동체끼리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바람난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내년에도 제주 곳곳에 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4> 마지막 연주 후 단체사진 촬영 모습

※ 출처: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202

4) '바람난장 스스로에게 편지를 띄우다' (2019. 12. 21. 바람난장 마감연주)

(1) 시 낭송 소개

"바람난장에 띄우는 편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연분홍 꽃잎이 하롱하롱 떨어지던 그 날 우리는 처음 만났습니다. 당신이 들려준 시와 노래에 어렵던 마음의 빗장도 사르르 풀렸죠. 어린 마음이 되어 당신의 품속으로 힘껏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는 봄기운 가득한 들판에서 삶을 예찬했고, 잊을 수 없는 사월의 아픔을, 유월의 침묵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복죽 한 그릇으로 정을 나누고, 한라산이끼서 해안에 이르는 섬의 모든 풍경을 끌어 안으며 제주를 노래했습니다. 모두가 열연했고 모두가 행복했죠. 마치 그 모습은 김순이 시인의<미친 사랑의 노래>를 닮았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5> 김순이 '미친 사랑의 노래 7' 전문(시낭송 김정희)

미친 사람은 행복하다 시에 미치고 그림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혼자 미친 것도 좋지만 보는 사람마저 미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위대한 미침 두려워 마라 미치는 것을

(2) 한 해 행사에 대한 전체적 성찰과 소개

"돌아보면 모든 날이 마음의 잔칫날이었네요. 그 유쾌한 시간의 힘에 이끌려 일년을 달려왔습니다. 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큰 위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러 나날을 마주하는 사이 예술을 삶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든 이름난 무대가 되는 성악가 오능희 님. 기쁨과 환희의 춤으로 신명을 달래준 무용가 장은 님. 협연의 진수를 선사해준 오승명·김수연·강명은 님. 언제나 귀보다 마음으로 먼저 듣게 되는 황경수 님과 수오노 펠리체 남성 중창팀. 간결한 시인의 언어로 아름다운 노랫말을 만든 문순자 님. 리코더의 고정관념을 아름답게 깨뜨린 오현석 님. 국악의 향기를 진하게 남겨준 전병규·현희순 님. 포근한 팬플룻 선율의 김정택 님. 묵직한 울림의 시낭송가 김정희·이정아 님과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의 연극인 정민자 님. 2019년 바람난장의 마지막 무대를 빛낸 얼굴들입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6> 성악 공연을 하고 있는 오능희의 모습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이냐고. 글쎄요, 까치발 세우고 먼발치에서 선망하며 바라만 보는 벽은 아닐겁니다. 선선한 바람처럼, 따스한 햇살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삶을 풍성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연 같은 것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거품과 치장을 걷어내 일상 속으로 잔잔하게 스며들고 싶었습니다.

섬 어디랄 것 없이 무대가 되었습니다. 산과 들, 바다. 심지어 물 빠진 갯가에 춤과 노래자락을 펼쳐놓기도 했죠. 가는 걸음들을 불러 모으며 열린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느긋하고 편안한 길 보다는 멀고 험한 곳에부터 발을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제주에 더 가까워져야 진짜 제주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술가란 익숙한 것을 새로 보게 합니다. 누군가는 붓과 펜으로, 춤과 음악으로, 사진으로 제주의 삶과 문화,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것. 말 그대로 매번 '업그레이드'와 싸움해야 했죠. 창작의 힘겨움과 예술의 열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정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서로의 초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7>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김수연, 오승명, 강명은의 모습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빛이 납니다. 무엇을 손에 쥐려 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만 아는 그 무언가의 가치를 느끼고 채워가며 바람난장의 서사를 써내려왔습니다. 담백하고 소박하게. 때론 고독하고 치열하게.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새해엔 더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죠.
보고 싶은 바람난장.
당신이 그리워 쓰는 저의 두서없는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새 봄이 올 때까지 편안하시기를,
깊어가는 겨울처럼 더 고요하고 충만하시기를...”

(3) 행사 참여자 소개

<그림 18> 행사 참여자 소개 내용

사회 정민자 시낭송 김정희, 이정아 성악 오능희, 수오노 펠리체 남성 중창 마림바&플루트&카혼 오승명&김수연&강명은	국악 전병규 현희순 팬플룻 김경택 리코더 오현석 무용 장은	그림 유창훈 사진 허영숙 음향 최현철 글 김은정

※ 출처: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5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유튜브 상에 소개된 내용 정리

바람난장 2019년 7월 27일 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올려져있다. 백조일손지묘에서 개최되었던 바람난장이었다.

매 회차의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부분부분 편집하여 올리고 있다.

<그림 19> 2019년 7월 27일 대정 백조일손지묘에서의 바람난장

6) '바람난장' 결과물 사례분석을 통한 함의

바람난장 결과물로써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례분석을 통해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이라는 장르가 공연예술과는 다른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림은 공연 시 드러나지 않는다. 화백이 현장에서 그림을 스케치만 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즉, 공연이라는 장르와 어울리기 어려운 '그림' 이라는 장르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교훈을 준다.

둘째, 사진이 선정되어 제시되는 과정 또한 단계별로 새로움을 준다. 공연이 끝날 경우 다양한 사진들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된다. 그 중에서도 신문에는 선택되어 제시된다. 이는 사진이라는 장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교훈이다. 어떤 사진이 신문사에서 선택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선택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단원들은 또한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 또한 '사진' 이라는 장르가 주는 독특한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낭송되었던 시들이 활자화되어 다시 살아나게 된다. 현장에서는 시낭송으로, 지나가는 선율이지만 신문에서 활자화되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향을 발하는 시가 되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넷째, 사전 팜플렛이 없지만 결과물로 정리해주는 결과를 도출한다. 신문이라는 장르와 콜라보레이션 한 결과이다. 음악공연과 무용공연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곁들여진다. 물론 글은 바람난장의 멤버가 작성하지만 그 내용은 신문상에 영원히 남게 되는 긍정성이 만들어진다.

다섯째, 출연진, 혹은 기여한 분들의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는 봉사한 분들에 대한 배려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기타 사항으로 영상은 온라인 신문상에 제시되어 온라인 신문의 분위기를 일정기간 문화마케팅에 기여하게 된다. 신문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서 자리잡고, 바람난장과 신문사의 이미지를 문화예술로 포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연합예술활동 활성화와 정책제언을 위한 인터뷰 내용 정리

1) 인터뷰의 개요와 내용

'바람난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임원, 기획자, 출연진, 스텝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의 목적은 첫째, '바람난장' 의 콜라보레이션 장르로서의 활성화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과 둘째, 콜라보레이션 장르인 '바람난장' 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인터뷰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나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세' 가 아니라 '대' 로 표기를 하여 10년 구간으로 정하여 표기하였다.

<표 5> 인터뷰 대상자 현황

구분	이름	나이	직종	역할	면접일자	요일
1	최00	40대	예술기획	연주자	2020.10.26	월요일
2	황00	50대	임원	연주자	2020.10.26	월요일
3	고00	40대	기획	스텝	2020.10.27	화요일
4	김00	50대	음악 연주자	연주자	2020.10.27	화요일
5	이00	40대	음악 연주자	연주자	2020.10.27	화요일
6	김00	40대	음악기획	연주자	2020.11.02	월요일
7	윤00	50대	성악가	연주	2020.11.02	월요일

(1) 최00, 40대, 예술기획, 연주자,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최00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객들의 접근기회를 줄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의미는 충분하지만 공유의 가치가 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으나 밖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수기획 작품들이지만 홍보를 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바람난장에서도 주체적으로 한다는 의식도 좋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콜라보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모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콜라보 장르를 따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2) 황00, 50대, 임원, 연주자,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황00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체적 해결의 시각에서 지원을 받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작이 구성원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자체적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어서 외부에서의 지원을 크게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예산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획팀을 잘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기획팀에게 예산도 지원하면서 훌륭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성원 밖에서의 적극적 섭외도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자원에 의해서 출연진이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 출연료를 아주 작게 드려야 하며, 식사를 대접하기 어려우니 구성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획팀과 임원진에서 경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밖에서 출연진을 섭외해 들어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차원에서 콜라보레이션 장르 혹은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향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 문화예술지원금을 지원할 때 콜라보레이션적 접근을 하면 인센티브 점수를 더 부과하는 방식이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3) 고00, 40대, 기획, 정산,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고00의 인터뷰 내용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한다는 것, 그 시도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문화예술 공연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도가 시도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러한 활동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바람난장의 공연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관객 동원의 문제이다. 물론 정량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좀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신문기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년간의 공연 진행으로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다고 사료된다.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이다. 공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장르의 조합, 개성이 강한 예술인들이 한 공연에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시기라고 보여 진다. 예를 들면 2개 이상의 장르의 결합으로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연주 도중 시를 낭송하고 연극을 시도해 봄직하다. 그러한 시도들이 없지는 않지만 좀 더 디테일한 준비와 노력,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융합, 협업, 융·복합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하지만 문화예술만은 예외인 듯해 보인다.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공모의 경우 지원신청 자격에 ‘다원예술’ 이라고 해서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있기는 하나 선정 단체의 수나 지원 금액, 이를 독려하기 위한 세부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지방정부는 문화예술 장르의 융합, 융·복합, 콜라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그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인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를 장려하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 장르간의 콜라보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문화예술과 인문학, 문화예술과 사회학 등과 같이 다른 분야와의 융합, 콜라보를 독려하여 ‘행정의 문화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와 문화예술이 중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다면 시대를 역행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성공,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방정부는 지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 발전’ 으로 지방정부에서 먼저 ‘행정의 문화화’ 를 위해 노력한다면 중앙정부 역시 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마련이 되는 것일 것이다.”

(4) 김00, 50대, 음악 연주자,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 곳곳 여러 단체들이 많으니 그 단체들과 찾아가는 바람난장을 기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 본인도 여러 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단원들에게 바람난장 같은 종합예술을 실제 접하는 기회를 주게 되면 예술적 교류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술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서는 소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소통하고 연습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인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장르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같이 모여 연습하다 보면 이러한 콜라보행사가 많아질 것이다.”

(5) 이00, 40대, 음악 연주자,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공연 연주자 풀이 부족하다. 예술가의 회원제를 통해 국악, 양악 등 다양한 예술가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SNS를 이용한 홍보로 관객이 찾는 바람난장이 필요하다. 현재 바람난장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역사깊은 장소를 찾아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공연형태는 무관중 공연에 가깝다. 월간 또는 연간계획을 SNS를 통해 공개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 ‘예술형식의 실험’ 을 관대한 눈으로 바라봐야한다. 2가지 이상의 복합예술에 대한 지원을 장려해야한다. 현재는 음악, 미술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있는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을 복합예술 분야로 비중을 높여야 한다.”

“공연에 대한 민원대응 협업이 필요하다. 바람난장이 외각에서 공연도 있지만 때로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진행할 때도 있다. 소음으로 생각하는 민원인이 이를 신고함으로써 공연이 어려움을 격을 때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공서와 미리 논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예시, 관에서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 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 김00, 40대, 음악기획,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가미된 자생기반 강화와 활동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문화예술단체 간 콜라보레이션은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조성할 수 있다. 생활문화예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예술이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져 사회공헌활동과 지역 현안 참여, 지역사회 애향심 증가로 이어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역시 제주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지역 예술단체의 사회공헌(문화봉사) 관련 정보 플랫폼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 플랫폼은 네트워크 활동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바람난장과 같은 여러 예술단체의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활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지속 발굴하고 공간 및 장비 공유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등의 문화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7) 윤00, 50대, 성악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윤00의 인터뷰 내용이다.

“바람난장의 일정을 홍보하고, 바람난장의 기록 보관, 바람난장의 기존의 자료들의 개방 등을 위해서 바람난장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콜라보레이션 장르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람난장과 같은 콜라보 형태의 장르가 공연을 하거나 버스킹할 때에는 지역주민과의 협조를 공공영역에서 조정해주거나 장소협찬에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이 작은 도움도 민간영역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2) 인터뷰 내용 함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터뷰 한 내용들로부터 함의를 도출했다. 첫째, 널리 알려지지 못한 아쉬움이었다. 좋은 준비, 많은 준비가 있었지만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표현이다. 찾아가서 그 공간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바람난장 구성원이 바랄 경우에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바람난장 팀 스스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표현이었다.

셋째, 참여 구성원을 회원제에서 대폭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참여 구성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표현들을 해주었다.

넷째, 지방정부의 연합예술활동, 즉 콜라보레이션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이다. 미래의 창조성은 융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한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었다.

다섯째, 두 개 이상의 장르를 한 번에 융합하고 연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별개의 장르별 연주를 하면서 하나의 전체 공연을 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두 세 장르가 하나의 작품으로 콜라보레이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새로운 단체와 바람난장이 연합예술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바람난장의 노력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연합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습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면 다양한 장르들이 연합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창조적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여덟째, 지역 예술단체의 사회공헌(문화예술봉사) 관련 정보 플랫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만들어 제공하면 네트워크 형성, 정보의 교환, 신청과 대응,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동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아홉째, 바람난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 상의 활동과 자료보관, 자료공유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예술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 관리비용 또한 봉사단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지방정부나 문화예술관련 재단이나 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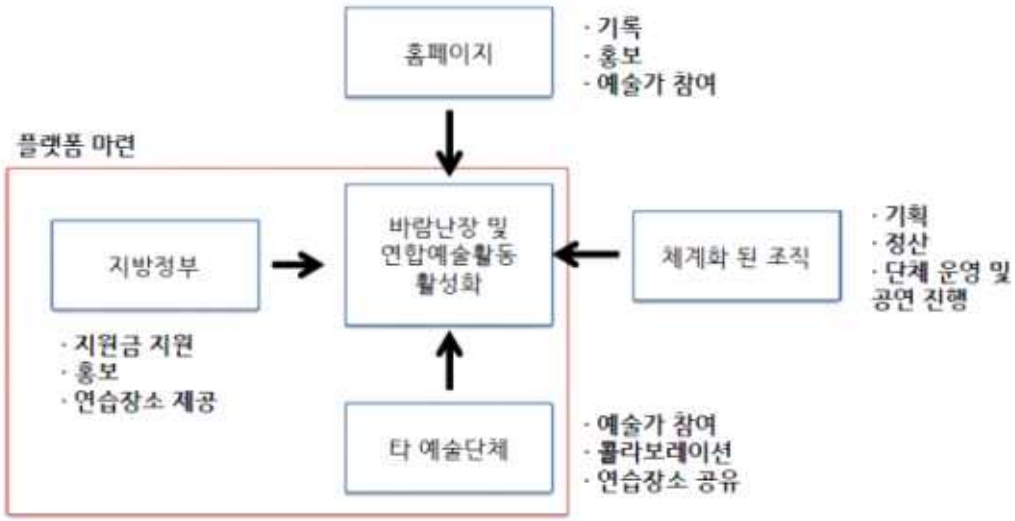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 번째, 공연 장소협의와 협찬,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간 영역에서 모든 공연장소를 섭외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부문이 이러한 내용에 조금의 지원이라도 해주면 연합예술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0> 바람난장 및 연합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



5. '바람난장'을 중심을 한 연합예술활동 모델 제안

바람난장의 준비와 실행과정을 모델로 형상화하면 다음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준비의 과정 모델

장르별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일정과 장소, 그리고 그 맥락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활동가(스텝진)들의 구성

임원진은 대표 1명이면 가능하나 스텝진들이 필요하다. 정산, 섭외, 장비이동, 현장에서의 대응 등에 대한 스텝들이 필요하다. 스텝진 구성이 양호하면 행사진행이 양호하게 된다.

3) 장르별 출연진 논의

장르별 출연진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장르별로 선정한 내용은 거의 받아들이도록 하면 장르별로 독립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협력 프로세스가 확보된다. 일정기일 두어 정해지면 알려주도록 하면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르별 책임자를 두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연과정과 신문에 보도

매 회기마다의 준비과정은 SNS를 통해 시작하고, 출연진은 스스로 자진제안을 통해서 결정하며, 부족할 경우 대표가 보완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송부하고, 신문사 문화부에서는 보도를 한다.

문화부에서는 나름의 기준으로 사진을 선별하고 지면의 설계를 통하여 보도한다. 한 회차의 내용을 2회에 보도함으로써 격주의 공연으로 지속적으로 지면을 채워내는 형태를 취하면 된다. 신문사의 여건에 따라 한 달에 1회 공연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한 달에 1회의 공연이면 임원진이나 스텝, 공연출연자 등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5) 1년간의 프로세스

매 회기마다의 계획에 따라 가능한 그 계획대로 이행한다. 격주에 한 번씩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이나 공연 장소에 대해 가급적 변경을 최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하며,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6) 마지막 회차의 종합 공연

마지막 회차에는 1년간의 결과를 정산하는 절차로 이행하면 바람직하다. 관련된 인사들을 모시고, 다양한 장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며, 그림의 전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다.

<그림 21> '바람난장'을 중심으로 한 연합예술활동 모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Ⅳ. 정책제언

1. ‘바람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제언

1)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 강화

바람난장에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기본적인 전략이다.

2) ‘바람난장’ 이 주체적으로 공모에 지원하여 예산을 지원 받도록 노력

인터뷰에서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규모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구성원 밖에서 출연진들을 섭외하는 노력이 필요

많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구성원범위 내에서 출연진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람난장’ 팀이 연합예술활동으로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밖에서의 출연진을 섭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다양한 장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형태의 공연 창작이 필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양한 장르가 별도로 공연을 하여 전체가 콜라보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두 개의 별도의 장르가 새로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창의적 콜라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낭송과 음악연주를 같이 한다든가, 무용과 음악 연주팀이 하나가 되어 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5) 참여자 풀을 만들고 확장시킴의 필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바람난장' 이 이루어진다는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연에 참여할 구성원 풀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공연에 참여할 사람을 요청하면 충분히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언

1) 장소 섭외 시에 공공의 협조가 필요

장소섭외 등에 있어서는 공공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간인이 섭외할 때와 공공의 협조가 있을 때는 완연히 다르다.

2) 보조금 지원시 연합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연합예술활동을 콜라보레이션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다른 장르와의 연합공연의 형태에 대해서 공모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예술재단, 예술총연합회 등에서 홍보

연합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별도로 만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연합예술활동 콘테스트 제안

연합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장르만을 모아 콘테스트 대회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연합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를 만들어내는 마당이 될 것이다.

5) 연합예술활동 매뉴얼 제작 및 배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합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팀구성 방법부터 다양한 기획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다양한 팀들에 대한 안내의 장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연합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습장 마련과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종합 연습장을 만들고 이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배라 함은 대여시간의 분배, 혹은 대여 장소의 분배를 의미한다. 다른 장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연주연습을 하다보면 새로운 장르의 공연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 론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인 우리나라 주요관광지 소개영상이 눈에 띄게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관광과 예술, 더 나아가 예술에서의 국악과 대중음악, 그리고 무용이 합쳐진 연합예술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획기적인 음악(국악)과 안무에 한복을 모티브로 한 수려한 의상 및 영상과 함께 어우러져 국내외적으로 3억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극찬을 받고 있다. 이렇듯 여러 장르에서 '둘 이상이 거듭 합쳐지거나 그것을 합쳐 하나를 이룸'을 뜻하는 '콜라보레이션' 의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합예술활동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바람난장' 의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연합예술활동모델의 요소를 제안하고, 이 바람난장이 연합예술활동 단체로서의 활성화, 문화예술분야에서 연합예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시대의 예술분야의 대응모델로써 연합예술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시, 문학, 음악, 무용, 낭송, 미술,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장르들이 어우러져서 펼쳐지는 '바람난장' 이라는 모델이 연합예술활동 모델로서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바람난장'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의 강화와 보조금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람난장' 의 경우 운영의 취지가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단원들의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형태가 강점이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물리적 화합이 아니라 화학적 화합형태의 연합예술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간을 두고 장르별로 연합하여 창작 작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기를 제안한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바람난장' 과 같은 연합예술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장소 섭외시 지원하는 측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원하는 측면, 지방정보의 홍보창구에서 연합예술활동을 함께 홍보해주는 측면, 연습장 마련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바람난장’ 은 연합예술활동으로서 보기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1년간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더라도 각 회차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술의 창의성은 개인적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합예술활동을 통해 새로운 활동의 영역이 개척되기도 한다. 현대 온라인 기기의 긍정성을 활용하여 기획, 섭외와 홍보 등의 편리함을 활용하여 이러한 연합예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자체적 노력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바람난장’ 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합예술활동의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일반화함에 있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우리나라의 연합예술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사례를 모아 분석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연합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에 매뉴얼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좀 더 새로운 것,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창의적인 것을 중시하고 대중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의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문화예술에서도 이와 같은 ‘콜라보레이션’ 의 형태의 활동이 활발히 나타나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루어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의 섬’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김해곤 (2019). 「예술이 흐르는 길, 2018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이승우 (2010). 「국가론」, 서울: 두남.

정경연·한지연 (2013). 현대예술과 패션의 아트콜라보레이션 유형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4): 475-485.

황경수 (2019). 「예술이 흐르는 길, 2019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한승연 (2014).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공연예술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46(1): 135-160.

한승연·차수정 (2015). 국립무용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사례분석 연구, 「한국무용연구」, 33(1): 129-165.

한승연 (2016), 콜라보레이션 무용공연에 대한 관람욕구, 공연만족, 행동의도와의 구조적 관계, 한국무용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pp. 245-261.

네이버 케스트, 범상규, “브랜드의 진화, 콜라보레이션”, (2014.3.5.).

매일경제, 심재우 . “창의적 협업의 요소(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5/06/622214/ (2015.6.30.).

주간경향, 류한석, “[IT칼럼] 한국에선 창의적 협업이 안 되는 까닭”,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402251557461 (2014.03.0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With the recent arrival of a social background requiring ‘jointed art activities’, the demand for convergence activities in the art has been increasing, reflecting this situ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genre of “jointed art activities” and to study the activation based on creativity through mutually supportive approaches, cooperation, and resonance among art organiz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jointed art activities of 'Baram Nanjang’ active in the Jeju, suggest elements of a desirable jointed art activity model, and suggest policies to promote joint art activities of 'Baram Nanjang’. To carry out this, the booklets and newspaper reports made through the activities of 'Baram Nanjang' were analyzed, and interviewed those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Baram Nanjang'.

'Wind Dwarf' began in 2017 and compiled data up to 2019. In 2017, it hosted 52 performances, 22 in 2018 and 21 in 2019. In this regar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ontents reported in newspapers and the images published on YouTube. Then, through the interviews with 7 people, implications were drawn. Looking at its contents, there is a need for active publicity and active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members, artists, and art organizations, and actively attempt to collaborat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a place to practice for jointed art activities, social contribution,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public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platforms for cooperation among art organization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ased on these implications, policies were suggested by dividing into areas for revitalizing the ‘Baram Nanjang’ and enhanc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sector. First of all, in order to revitalize the 'Baram Nanjang', it was suggested to produce homepage and strengthen promotion, secure budgets through independent efforts, recruit various cast members, persue creative collaboration through convergence, and expand the pool of participants. In relation to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sector, it was suggested to find a place, public cooperation in public relations, provide additional incentives for jointed art activities, jointed art activity contests, manu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nd the preparation and provision of practice fields.

The creativity of art appears as a personal activity, but the area of new activities is also explored through jointed art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jointed art activities, the efforts of ar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are necess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2017년 바람난장 사업결과

순번	날짜	장소	제목	참여 아티스트
1	2016.12.31	팔운석 (八雲石)	한 가지 빛의 구름을 더 얻지 못해 큰 울음 토해냈나	오승철(글)임성호 (그림) 허영숙(사진)
2	2017.01.07	닭머르	어둠 헤치고 깨어난 그곳엔 트럽펫 소리 울려퍼졌다	강영란(글) 김해곤(그림) 김영웅(트럼펫) 허영숙(사진) 김향진(시낭송)
3	2017.01.14	위미리동백꽃마을	한 겨울 속 붉은 눈...오씨 삼춘 할망의 보석 같은 선물	고해자(글) 임성호(그림) 이경숙(시낭송) 허영숙(사진)
4	2017.01.21	삼매봉 남성정	시와 음악이 흐른 평안한 밤...별은 잠시 머물다 갔다	오승철(글) 김해곤(그림) 김정준(트럼펫) 허영숙(사진) 문숙희(시낭송)
5	2017.01.28	진안할망당	한 맺힌 열세 살 소녀 그리워...흰 비단천은 소리내어 울었다	강영란(글) 허영숙(사진) 유창훈(그림) 박연술(춤) 하민경(장구) 은숙(소리)
6	2017.02.04	꽃머체·행기머체	들판에 솟아오른 꽃과 놋그릇 사이로 詩心이 일다	고해자(글) 임성호(그림) 허영숙(사진) 장영춘(시낭송) 정욱성(클라리넷) 이상철(음악·공연감독)
7	2017.02.11	구엄 돌염전	눈보다 하얀 눈물과 땀의 유산을 읊조리다	오승철(글) 유창훈(그림) 윤행순(시낭송)
8	2017.02.18	머체골	아프게 떠난 이들의 집터엔 검은 나비가 찾아와 춤을 추었다	강영란(글) 고철희 머체왓숲길영농조합법인 대표(시낭송) 은숙(가야금) 박연술(춤) 허영숙(사진) 김해곤(그림) 이상철(음악·공연감독)
9	2017.02.25	까사돌 카페	커피는 떨어졌어도 아리아의 선율만은 무한리필	강영란(글) 임성호(그림) 문순자(시낭송) 허영숙(사진) 이상철(음악설명)
10	2017.03.04	장한철 산책로	바다가 삼킨 21명의 넋혼 시조에 띄워 달래다	오승철(글) 유창훈(그림·사진) 윤행순(시낭송) 이상철(음악·공연감독)
11	2017.03.11	백록담	하늘아래 울려퍼진 맑은 음색에 청운도 잠에서 깨어났다	오승철(글) 이정순(오카리나) 김해곤(그림) 장영춘(사진·시낭송) 이상철(음악·공연감독)
12	2017.03.18	하물	파란 물감 풀어놓은 물 위에 은어 떼 춤춘다	고해자(글) 백주순(그림) 허영숙(사진) 김장명·김장선(시낭송) 김종호(노래)
13	2017.03.25	무등이왓	안녕, 안녕...손 흔들며 눈물 너머로 너의 넋이...	강영란(글) 허영숙(사진) 이상철(음악감독) 김정희(시낭송) 이정순(오카리나) 박연술(춤) 신선순동광리사무장(안내) 홍진숙(그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지엽 교수님, 문순자, 고해자, 양승보, 이경훈(참석자)
14	2017.04.01	비양도	바다가 안단테·안단테...'천년의 섬'을 노래한다	고해자(글) 김해곤(그림) 허영숙(사진) 김수연(플루트) 윤성원·유태준 어린이(플루트) 김정희(시낭송)
15	2017.04.08	명월대	춘삼월 낮술에 취하듯...너도 나도 멋과 풍치에 취했다	오승철(글) 유창훈(그림) 허영숙(사진) 현충헌·지기택(섹소폰) 김해민(노래) 이상철(음악·공연감독) 김정희(시낭송)
16	2017.04.15	쇠소깍	바위에서 몸을 던진 붉은 꽃잎이 물에 눕다	강영란(글) 고성옥(노래) 백주순(그림) 허영숙(사진) 김정희(시낭송) 이상철(음악·공연감독)
17	2017.04.22	조천 연북정	저 북쪽, 임금 향한 그리움이 물결을 타고 가네	고해자(글) 홍진숙(그림) 강영란(사진) 한림화(해설) 김정희(시낭송)
18	2017.04.29	산지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시간도 물 따라 흐르네	강영란(글) 고성옥(음악) 강문규 한라생태 문화연구소장(해설) 김정희(시낭송) 김해곤(그림) 이상철(음악감독)
19	2017.05.06	구억리 노랑굴	제주구석구석아프지않은곳이 어디있더냐	강영란(글) 허은숙 제주옹기박물관장(해설) 유창훈(그림) 허영숙(사진) 이상철(음악감독) 문상필(태평소) 이동선·고영춘(시낭송) 한림화(해설)
20	2017.05.13	김순이 시인의 집	꽃 피고 별 쏟아지고...오늘 하루가 詩다	고해자(글) 홍진숙(그림) 허영숙(사진) 손희정·김장선(시낭송) 이정순·이정아·이새미(오카리나)
21	2017.05.20	농업회사법인 (유)삼다인 농장	제주 초여름은 '아기 선풍기 날개' 같은 꽃잎 천지다	오승철(글) 김해곤(그림) 손희정·김장선(시낭송) 이정순·이정아·이새미(오카리나) 장영춘(사진) 김창부(해설) 이상철(음악감독)
22	2017.05.27	지귀도	누구의 일생일획 같은 지귀도가 예술혼으로 꿈틀댄다	오승철(글) 홍진숙(그림) 고성옥(노래) 허영숙(사진) 최옥주·김옥자(시낭송)
23	2017.06.03	제주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주 연습 공간	이들의 음악 향한 열정이 꽃보다 아름답다	강영란(글) 유창훈(사진) 손희정(시낭송) 이상철(음악감독) 장선경(합주지휘)
24	2017.06.10	아끈다랑쉬 오름	해서체 오름 병풍 펼친 곳서 얼쑤~얼쑤 흥이 넘친다	고해자(글) 김해곤(그림) 허영숙(사진) 김정희·손희정(시낭송) 고창송(섹소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5	2017.06.24	초원의 집	오늘은 흐드러지게 핀 산수국의 그늘도 詩다	강영란(글) 강부언(그림) 허영숙(사진) 문남일(톱 연주) 김정희(작품 낭송) 이상철(음악감독)
26	2017.07.01	옛 대정면사무소 청사	하늘이 한 눈 팔아서 모슬포의 아픔 못봤을까	오승철(글) 유창훈(그림·사진) 김재현(연주) 김정희·오상석(시낭송) 손희정(퍼포먼스) 이상철(음악감독)
27	2017.07.08	모슬포 '삼다도 노래비'	상처 난 바람이 불어도 모슬포는 늘 그립다	고해자(글) 홍진숙(그림) 허영숙(사진) 손희정·김정희(시낭송) 지기택(소프라노 섹소폰) 현충하(테너 섹소폰) 이상철(음악감독) 손희정(퍼포먼스)
28	2017.07.15	유수암리	수 백년 시공간을 넘어...아프지만 고운 사랑을 부르다	오승철(글) 김해곤(그림) 허영숙(사진) 나종원·김동현·고경권(연주) 문선희·이병훈(시극) 박연술·은숙(춤·소리) 이상철(음악감독)
29	2017.07.22	금능 원담	"원담에 거북이 울멍 이신디...소주 멕영 보낸 후로 멜 스물 두 콘테나 했주"	고해자(글) 강부언(그림) 허영숙(사진) 양민숙·손희정(시낭송) 오진근(알토 섹소폰) 강창오(테너) 이상철(음악감독) 손희정(퍼포먼스)
30	2017.07.29	오조리 식산봉	아름다움 속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 오조리!	손희정(글) 유창훈(그림) 허영숙(사진) 조호연·강용준(낭송) 양춘희(서예)
31	2017.08.05	사계리 발자국화석	1만여 년 전 발자국 화석 주인공들이 잠에서 깨어나다	오승철(글) 김해곤(그림) 윤행순·손희정(시낭송) 정욱성·고은임·오유경·김미영·위명희·부경숙(연주)
32	2017.08.12	두모악 김영갑 갤러리	바람섬에 깃든 오름과 잎새로 이어도를 인화하다	강영란(글) 홍진숙(그림) 허영숙(사진) 이상철(음악감독) 이혜정(시낭송) 손희정(퍼포먼스)
33	2017.08.19	윗세오름	오름 나그네도 차마 이곳을 못 건넌 사연 무엇이더냐	고해자(글) 강부언(그림) 임대규 국립공원해설사(사진) 나종원·김영자(연주) 오다겸(노래) 김장명·한기팔·임복희(시낭송) 강양선(해설)
34	2017.08.26	보목동 '볼레낭개' 난장	세상 맛나게 사는 거 보려거든 보목리를 찾으라	김순이(글) 허영숙(사진) 나종원(소프라노 섹소폰) 김정희(노래) 송순웅·오영희·박종희(시낭송)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5	2017.09.02	신산공원 문학동아리 축제	몽유병 걸린 이호 바다의 물결에 홀린 듯…	오승철(글) 김해곤(그림) 제주에코섹소폰앙상블(음악) 허영숙·고해자(사진) 한곬 현병찬·강선종(서예) 이금미·김정희(시낭송) 이상철(음악감독)
36	2017.09.09	솔동산 고영우갤러리	그림과 시, 음악이 서로 손잡고 춤추기 시작했다	손희정(글) 홍진숙(그림) 송순웅(사진·낭독) 김순이(진행) 김일형·나종원·고경권(연주) 김장명·김정호·김미성·이금미·강은영·김미령·신희숙·김장선·정영자·오택중(시낭송)
37	2017.09.16	우도 고래콧구멍 동굴 난장	고립과 결핍으로 지어진 섬에서 시·그림·영화가 태어났다	김순이(글) 강부언(그림) 허영숙(사진) 나종원(연주) 김정희·손희정·김순덕(시낭송)
38	2017.09.23	원당봉 바람난장	어두운 삼첩칠봉에서 달빛에게 사랑을 묻다	김순이(글) 유창훈(그림) 손희정(사진) 김기선·김옥자(시낭송)
39	2017.09.30	북촌돌하르방공원	돌하르방이 듬직한 손길로 아픈 4·3을 쓰다듬다	손희정(글) 김해곤(그림) 이금미(시낭송) 김정희·박연순(소설낭독) 박연술·은숙(춤·소리) 정일(기타) 선흘볍씨학교 학생들(특별출연)
40	2017.10.07	우도 분화구	초록의 바다에서 우도가 휘~휘 숨비소리를 낸다	고해자(글) 강부언(그림) 허영숙(사진) 나종원(연주) 손희정·김정희·김순덕(시낭송)
41	2017.10.14	서귀포 칠십리 야외공연장	늘 너를 생각하며 서귀포 하늘에 편지를 띄운다	손희정(글) 김순자·강서정(낭송) 이정환(노래) 이상철(사진) 홍진숙(그림) 핫 사운드 빅(섹소폰 앙상블)
42	2017.10.21	제주시 해안도로 로렐라이	이 언덕에 서면 그리움 실은 바람 불어와 마음 설레네	오승철(글) 홍진숙(그림) 김수연(음악) 강용준(낭송) 이상철(음악감독) 손희정(사진)
43	2017.10.28	안덕면 서광리의 '정낭난장'	구름 낀 날, 마을의 폭낭들은 4·3의 아픔 알까	고해자(글) 강부언(그림) 문순자·이애자·홍진숙(사진) 김동현(클라리넷) 김영자(오카리나) 문순자·이경숙(시낭송)
44	2017.11.04	솔오름[미악산]	그리움이 바람되어 그대 가슴에 살포시 앉았으면…	김순이(글) 유창훈(그림) 이동원(노래) 한동균(테너) 고경권(하모니카) 이상철(음악감독) 고해자(시낭송) 한천민(사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5	2017.11.11	따라비 오름	생명의 굿판에서 누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가…억새다	손희정(글) 강부언(그림) 강순복(노래) 김영웅(트럼펫) 김정희·손희정(시낭송) 문순자(사진)
46	2017.11.18	제주시 연동 박흥일 서예 창작실	북채로섬을때려라…이마서늘 한소리들을지니	오승철(글) 홍진숙(그림) 기타동아리 '끌림소리'(노래) 김정희·손희정(시낭송) 허영숙(사진) 박흥일(서예)
47	2017.11.25	알뜨르비행장	섬 깊은 속살에 켜켜이 쌓인 이 아픔은 언제 나아질까	손희정(글) 김해곤(그림) 나종원(섹소폰) 김정희·손희정(시 낭독) 이애자(현장스케치·낭독)
48	2017.12.02	제주신화전	별에게 안부를 묻다	고해자(글) 유창훈(그림) 허영숙(사진) 김진숙·이명숙(시낭독) 김재현(바이올린)
49	2017.12.09	제주교육박물관	서귀포에선범섬·문섬·섶섬이詩人이다	김윤숙(글) 강부언(그림) 김재현(바이올린) ㈔제주詩낭송협회(시낭송) 허영숙(사진)
50	2017.12.16	위령공원	눈물로 옷 적신 슬픔이 바다쪽으로 걸어갑니다	김순이(글) 홍진숙(그림) 허영숙(사진) 나종원(연주) 박연술(춤) 은숙(소리) 이경숙·강경아(시낭송)
51	2017.12.23	석화갤러리	'…위미리 동박낭 강알에 벽력 같은 꽃이 피나'	고해자(글) 유창훈(그림) 문순자(사진) 신희숙·정영자·박명숙·김정호·강은영(시낭송) 나종원·서란영·이현지·고경권(연주)
52	2017.12.30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술에 취해 잘 놀았다…흐드러지게 핀 꿈이었나	오승철(글) 김해곤(그림) 이현지(첼로) 문상필(향피리) 김정희·문영애·최현숙·장영심(시낭송) 박연술·은숙(춤·소리) 허영숙(사진) 이상철(음악감독)

※ 출처 : 김해곤 발행(2019), 「예술이 흐르는 길, 2018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pp.36-39에서 발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2. 2018년 바람난장 사업결과

회차	날짜	장소	제목	참여 아티스트
1	2018.03.03	서귀포 칠십리 詩공원	上. 겨울잠서 깬 생명들의 봄 타령이 詩가 되다 下. 제주의 정체성을 캐기 위해 문화 광부들이 뭉쳤다	고해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강부언(미술) 김동현(클라리넷) 박연술(춤) 허영숙(사진) 김태현(영상)
2	2018.03.17	옛 구억국민학교	上. 봄날의 약속이 총에 맞아 죽다…4월은 잔인한 달 下. 동백꽃의 눈물…제주의 4월을 적시다	문순자 오승철(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홍진숙(미술) 김정준(트럼펫) 정민자·강상훈(낭독공연)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성요한(노래) 채명섭(사진) 고대환(영상)
3	2018.03.31	김석희 번역가 자택	上. 햇살이 볼을 간질여 봄이 까르르 웃던 날… 下. 봄바람에 몸을 맡기다	손희정(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유창훈(미술) 김도형(기타) 정민자·강상훈(낭독공연)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허영숙(사진) 김태현(영상) 강영화
4	2018.04.14	변시지 추모공원	上. 누구나 가슴속에 출렁이는 바다를 갖고 있다 下. 등 굽은 소나무를 바람이 쓰다듬다	고해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김해곤(미술) 현순량(오카리나) 김도형(기타) 서란영(팬플루트) 김백기(퍼포먼스) 박연술(춤) 채명섭(사진) 고대환(영상) 이경은 현대미술관 관장
5	2018.04.28	서귀포 '면형의 집'	上. 우리 곁에 없을 때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下. 흙 속에는 누군가 심은 사랑이 있다	손희정(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강부언(미술) 성민우(소프라노 색소폰) 김백기·Guillerm Luis Horta·이혜정(퍼포먼스) 정민자·강상훈(낭독공연)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박연술·은숙(춤, 소리) 한소영(피아노)허영숙(사진) 이정희(영상) 서귀포성당 타케신부기념사업추진위원회 오충윤 위원장
6	2018.05.12	관음사 충성공원 충혼비	上. 바람 불던 날 그들은 하늘의 꽃이 되었다 下. 젊은 넋의 눈물이 한라산을 적시다	현정희(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홍진숙(미술) 박근표(성악) 김백기(퍼포먼스) 박연술·은숙(춤, 소리) 우상임(아코디언)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채명섭(사진/영상) 이재수·서재철 작가
7	2018.05.26	석주명 나비공원	上. 샛노란 꽃밭에서 꿈을 꾸는 나비가 되다	조영랑(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유창훈(미술) 전병규 현희순(소금, 신디사이저) 김수연(플루트) 정민자· 강상훈(낭독공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下. 사뿐사뿐 다가온 나비의 꿈을 읽다	성요한(노래)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오흥부/정세호 관장
8	2018.06.09	모슬포 강병대교회	上. 섬 젊은이에게 겨눠서 이기는 믿음 심어줬다 下. 총·칼 대신에 따뜻함이 가득한 곳을 꿈꾸다	문순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김해곤(미술) 김수연·오승명·황재선·강영은(플루트 마림바 합주) 정민자·강상훈(낭독공연)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박연술(춤) 채명섭(사진/영상) 김웅철 향토 사학자
9	2018.06.23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上. 사람들은 피와 땀, 굶주림 때문에 울었다 下. 피와 눈물로 흙을 다지며 이곳을 지었다	손희정(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강부언(미술) 김도형(기타) 문상필(태평소) 김백기(퍼포먼스) 박연술(춤)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허영숙(사진) 고대환(영상) 김석희 번역가
10	2018.07.07	애월읍 수산리 곰솔	上. 물뫼마을 지켜주는 하얀 곰 같은 소나무 下. 마을을 삼킨 물이 마음까지 베어 아프다	장영춘(글) 홍진숙(미술) 김형진(피리) 김신규(성악) 정민자·강상훈(낭독공연) 박연술 은숙(춤, 소리)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11	2018.07.21	금산공원	上. 邑에는 읍장이 있는데 納邑엔 왜 이장이 있을까 下. 곶자왈에 펼쳐진 풀빛이 가슴을 흔드네	고해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유창훈(미술) 황경수(음악)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전병규 현희순(소금, 신디사이저)채명섭(사진/영상)
12	2018.08.04	방선문	上. 신과 인간의 경계선에서 풍류를 즐겼다 下. 애랑이 멱 감는 거 보다 넋 나간 사또 계곡에 빠지다	문순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김해곤(미술) 황경수(성악) 이관홍(오보에) 정민자(낭독공연) 채미선 외(오카리나 6중주)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양전형 시인
13	2018.08.18	제주현대미술관 잔디마당	上. 삶이 흐르는 강에서 희로애락을 노래하다 下. 통통배 타고 이어도 가는 날…노래 쏟아지다	현정희(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강부언(미술) 전병규·현희순(소금, 신디사이저) 스티브 미드(음악) 더튼 플루트 앙상블(음악) 제네바 금관5중주 김백기·장은(퍼포먼스) 채명섭(사진/영상)
14	2018.09.01	송악산 진지동굴	上. 누가 내 가슴에 아픔의 구멍 숭숭 뚫었나 下. 생살 찢긴 아픔의 무게를 누가 알겠나	손희정(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홍진숙(미술) 문상필(피리, 태평소)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박연술·(춤, 소리) 채명섭(사진/영상) 이창선 시인 강창유 시인
15	2018.09.15	하논 분화구	上. 누군가 한끼 밥 뜸들이는 시간이 곱다	고해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유창훈(미술) 성민우(색소폰) 정민자(낭독공연) 박연술 은숙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下. 옛날 옛적 원시림의 영혼이 춤추던 날에…	(춤, 소리)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채명섭(사진/영상) 오충윤 하논지킴이
16	2018.09.29	삼매봉 남성정	上. 누가 누가 오래 살까… 별들에게 물어봐 下. 별 볼 일 없다고…아냐, 이곳선 별 볼 일 있어 즐거워	문순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김해곤(미술) 김영웅(트럼펫) 고경권(하모니카) 장은(무용)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윤봉택 탐라문화유산보존회 이사장
17	2018.10.13	고마로	上. 치워라, 그물…나는 길들이지 않은 바람이다 下. 말고삐 잡고 달리다 보니 나이 든 가을에 왔구나	장영준(글) 전병규·현희순(소금, 신디사이저) 강상훈(낭독공연) 은숙·한정희·양창열(무용)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허영숙(사진/영상) 강창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
18	2018.10.28	제주 돌문화공원	上. 길가에 구르는 돌…화산이 자연에 그린 것이다 下. 돌 많은 제주섬…노래·춤 흥겨움에 걸림돌 없다	고해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홍진숙(미술) 채미선·양혜숙·한미원·강형숙·김윤향(오카리나 5중주) 서란영(팬플루트, 오카리나) 성요한(노래) 황경수(알토호른) 채명섭(사진/영상)
19	2018.11.10	사려니숲길	上. 숲에 내리는 햇살에 몸 맡기니 나도 나무가 됐다 下. 꽃향기도 나눠주고 가을빛도 나눠주고…숲은 부자다	조영랑(글) 정민자(시낭송) 유창훈(미술) 정욱성(클라리넷) 장은(무용) 황경수(성악) 서란영(팬플루트, 오카리나) 허영숙(사진/영상)
20	2018.11.24	사라봉 산지등대	上. 네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살포시 빛 건네다 下.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구원의 손길	문순자(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김해곤(미술) 고결(엘토 색소폰) 박연술·은숙(춤, 소리) 서란영(오카리나, 팬플루트) 채명섭(사진/영상)
21	2018.12.08	도두봉	上. 파도에 차이지만 몽돌의 꿈은 단단하다 下. 오름에 올라 눈 감으니 사랑만 보이네	현정희(글) 강부언(미술) 이관홍(오보에) 정민자·강상훈(낭독공연) 장은(무용) 황경수(색소폰) 서란영(팬플루트, 오카리나)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22	2018.12.22	탑동 해변공연장 소공연장	上. 사계절처럼 돌고 도는 인생…종착역은 어디인가 下. 봄 새싹 노래하는 사이 하늘에선 눈이 내리네	조영랑(글)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유창훈(미술) 은수(소리) 고승익(작곡) 안성복(작곡) 이동용(피아노) 김에스더(피아노) 한동균(테너) 오능희(소프라노) 우상임(아코디언) 전병규·현희순(소금, 신디사이저) 김백기(퍼포먼스) 박연술·은숙(춤, 소리) 허영숙(사진) 채명섭(영상)

※ 출처 : 김해곤 발행(2019), 「예술이 흐르는 길, 2018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pp.2-3에서 발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3. 2019년 바람난장 사업결과

회차	날짜	장소	제목	참여 아티스트
1	2019.04.06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5.16도로)	上. 분홍빛 미소에 숨이 막힌 봄날 下. 돈 떨어진 건달같이 봄날은 가네	김효선(글) 정민자(사회)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이상철(음악감독) 김정숙(음악반주) 박소연(무용) 김수연(플루트) 양영환(해설) 김정희와 시놀이(시낭송) 장유석(색소폰) 유창훈(그림) 황경수,김영곤(성악)
2	2019.04.20	문필봉, 외솥받이, 밭 가운데 있는 조각품	上. 봄날, 풍경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下. 청보리 이웃한 애월 바다서 時를 낚다	김은정(글) 김정희(사회) 허영숙(영상) 채명성(사진) 최현철(음향) 이상철(음악감독) 장은(무용) 이정아,장순자(시낭송) 김종호(해설) 오현석(리코더) 김영곤,박다희,황경수(성악) 홍진숙(그림)
3	2019.04.04	구억 초등학교	上. 오월은 스물한 살 금방 찬물로 세수한 얼굴이다 下. 오월은 찰란하면서도 아프다	김효선(글) 허영숙(사진) 김성수,홍예(영상) 채현철(음향) 정민자(사호) 유창훈(그림) 양창연(무용) 김정희와시놀이(시낭송) 김수연(플루트) 오현석(리코더) 홍석철(트럼펫)
4	2019.05.18	건입동 동자복 일대	上. 천년의 눈빛, 천년의 사랑 下. 사랑이 다가설 때...너의 봄, 너의 찬란함	김은정(글) 김정희(사회) 김정숙(반주) 최현철(음향) 김성수(영상) 채명섭(사진) 이상철(음악감독) 정민자(시낭송) 강상훈(시낭송) 홍진숙(그림) 김영곤(성악) 강문규(해설) 오능희(성악) 오현석(리코더) 문종태(제주도의원) 김미숙(제주시 건입동장)
5	2019.06.01	섬속의 섬들의 속삭임	上. 소가 바다에 누운 까닭은 下. 소섬은 오늘도 숨비소리 내며 물질 중이다	고해자(글) 김정희(사회) 오창래,문순자(시조) 박치현과 아이돌(음향) 김백기(퍼포먼스) 허영숙(사진) 김정숙(반주) 강문규,문영택(현장답사) 이상철(음악감독) 김철수(해설) 오연석(리코더) 김지선(성악) 박선주(가야금) 김정희,이혜정,이정아(시낭송) 유창훈(그림) 박선주(퍼포먼스) 황경수(오보에) 이관홍(색소폰)
6	2019.06.15	대정현 역사전시관 일대	上. 조국,전쟁,핏줄...6월은 아프다 下. 유월은 모슬포의 눈물이다	김효선(글) 김정숙(반주) 채명섭(사진) 김성수(영상) 최현철(음향) 정민자(시낭송) 김정희(사회) 강세운(무용) 김웅철(해설) 강상훈(곡낭독) 윤경희(성악) 이미선(그림) 박다희,황경수(성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2019.06.29	김녕일대	上. 어머니 가슴에 구멍이 숭숭...저 限을 누가 메우랴 下. 우리 어멍은 돌밭 위의 순례자	김은정(글) 김정희(사회)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최현철(음향) 홍진숙(그림) 김민경(아코디언) 윤경희(성악) 김정희,이정아,이혜정(시낭송) 오현석(리코더) 강승진(해설) 박소연(무용)
8	2019.07.13	어리목광장	上. 너, 나 우리가 한라산의 뿌리다 下.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곧 한라산이다	고해자(글) 정민자(사회) 김성수(영상) 최현철(음향) 채명섭(사진) 고은(그림) 김민경(아코디언) 기정희와시놀이(시낭송) 김정숙(반주) 박소연(무용) 김영곤,황경수(성악) 오현석(리코더)
9	2019.07.27	대정 백조일손지묘	上. 한 곳서 132명이 죽어 한 영혼이 되었다 下.	김효선(글) 김정희(사회) 고성기(해설) 김성수(영상) 허영숙(사진) 오현석(리코더) 김정숙(반주) 김민경모자(아코디언,노래) 윤경희(성악) 박소현(무용) 정민자,강상훈(시낭송) 고은(그림)
10	2019.08.04	고산포구	上. 바다는 해녀의 땀과 눈물이다 下.	김효선(글) 최현철(음향) 김정숙(반주) 허영숙(사진) 장은(무용) 오현석(리코더) 윤경희,황경수(성악) 김경택(플루트) 홍진숙(그림) 이정아,장순자(시낭송)
11	2019.08.10	협재리 돌빛나예술학교 동굴	上. 불면의 밤, 어머니의 자장가는 어디에... 下. 여름, 그리움의 추억 한 조각을 만나다	김은정(글)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최현철(음향) 김명수(현장감독) 강상훈(시낭송) 김정숙(반주) 정민자(사회) 김지선(성악) 장은(무용) 유창훈(그림)
12	2019.08.24	정방폭포	上. 뚝 떨어진 물 한방울, 바다가 되다 下바다와 섬, 폭포가 4.3의 증인들이다.	고해자(글) 이미선(그림) 김성수(영상) 채명섭(사진) 박소연(무용) 김정숙(반주) 황경수(호른) 이미선(그림) 김정희와시놀이(시낭송) 안창현(성악) 김정희(시낭송) 정민자(사회)
13	2019.09.07	성산포	上. 영원한 소년, 성산포 下.	김효선(글) 김정희(사회) 최현철,고한국(음향) 김정숙(반주) 김성수(영상) 허영숙(사진) 유창훈(그림) 장은(무용) 이정아,장순자(신문낭독) 정민자(시낭송) 윤경희,황경수(성악)
14	2019.09.21	남원읍 의귀리사무소	上. 목자의 삶에 바치는 아름다운 헌사 下.	김은정(글) 정민자(사회) 김부일(해설) 채명섭(사진) 김성수(영상) 홍종철,고한국(음향) 오현석(리코더) 황경수(성악) 이미선(그림) 이태주(트럼펫) 윤경희(성악) 김정희와시놀이(소설낭독,시낭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5	2019.10.05	따라비 오름 일대	上. 바람 노래에 억새가 춤추고...사람은 취했다 下. 갑마장 가는 길...거기에 짙은 가을 있네	김정희(글) 홍진숙(그림) 김민경(아코디언) 이관홍(색소폰) 허영숙(사진) 최현철(음향) 강다혜(무용) 강상훈(시낭송) 김정희(사회) 황경수,김영곤(성악) 정민자(시낭송)
16	2019.10.19	산지천	上. 산지천에 쏟아진 별을 줍다 下. 산지천서 마음을 씻다	홍정철(음향) 김정숙(반주) 채명섭(사진) 강문규(해설) 고해자(글) 정민자(사회) 이관홍(플루트) 한정희(무용) 오현석(리코더) 김정희(시낭송) 고은(그림) 윤경희,황경수(성악)
17	2019.11.02	용연 구름다리 일대	上. 가을 용이 놀던 곳서 취하다 下. 용의 전설이 달빛에 빛나다	김효선(글) 김정희(사회) 채명섭(사진) 고한국(음향) 김성수(영상) 김정희,이정아,장순자(시낭송) 한정희(무용) 김기태(기타) 이태주(트럼펫) 유창훈(그림) 윤경희(성악) 김정숙(반주) 김민경(아코디언)
18	2019.11.16	서귀포 도순동 일대 오 넘버원 농장일대	上. 사람, 땅, 날씨가 빚은 선물... 下. 자식 셋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귤나무다	김은정(글) 정민자(사회) 허영숙(사진) 김성수(영상) 고한국(음향) 고결(색소폰) 윤경희(성악) 김정숙(반주) 오현석(리코더) 이태주(트럼펫) 박소연(무용) 이혜정(시낭송) 황경수父女(성악·바이올린) 홍진숙(그림)
19	2019.11.30	산천단	上. 다그치지 않아도 이 겨울에 솔향을 내주다 下. 세상 걱정에 등 굽은 줄도 모르고...	고해자(글) 김정희(사회) 채명섭(사진) 김성수(영상) 윤경희(성악) 이혜정(시낭송) 이정아(시낭송) 전병규(소금연주) 오현석(오카리나) 이미선(그림)
20	2019.12.12	가파초등학예회 난장	上. 행복이 파도 타고 닿는 섬 下.	김효선(글) 황경수(사회) 최현철(음향) 허영숙(사진) 이태주(트럼펫) 황경수(성악) 황예슬(바이올린) 고은(그림) 이관홍(오보에) 김정희(시낭송)
21	2019.12.21	강부언 갤러리(아트인 명도암)	上. 바람난장 돌아봄 下. 바람난장 스스로에게 편지를 띄우다	김은정(글) 정민자(사회) 허영숙(사진) 최현철(음향) 오현석(리코더) 김정희,이정아(시낭송) 수오노 펠리체 남성중창(성악) 오승명·김수연·강명은(마림바,플루트,카혼) 오능희(성악) 유창훈(그림) 장은(무용)

※ 출처 : 황경수 발행 (2020). 「예술이 흐르는 길, 2019 바람난장」, 문화패 바람난장, pp. 10-11 에서 발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